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및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조영미¹, 이주연^{2*}

¹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Gender Susceptibility of Nursing Students

Young-Mi Cho¹, Joo-yeon Lee^{2*}

¹Assistance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Dept. Nursing Science, Choehae College of Health Science

²Assistant Professor., Dept. Nursing Science,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U시의 간호대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지 감수성은 간호대학생들의 피임태도($r=0.357$, $p<0.001$)에 유의한 상관이 있고, 피임태도가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beta=0.356$, $p<0.001$)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피임태도의 정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성지식, 피임태도, 성인지 감수성, 성인식,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xual knowledge and contraceptive attitude and gender sensitivity of the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9 nursing students from November 2019 to December 2019 at U city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contraceptive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ender sensitivity($r=0.357$, $p<0.001$), and it was the factor that affected gender sensitivity($\beta=0.356$, $p<0.00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d apply the programs to enhance the gender sensitivity for the nursing students, and the college and the government support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contraceptive attitude.

Key Words :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gender susceptibility, sexual perception,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Joo-yeon Lee(paper@policy.or.kr)

Received June 19,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Revised July 23,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법조계를 시작으로 여러 계층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한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정치인의 성접대, 성추행과 성폭행에 관한 기사들은 온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1] 병원이라는 환경에서도 성희롱은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2]. 이러한 사건들과 함께 마스크를 통하여 접하게 된 단어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다. 고위 공무원이나 유명 연예인 그리고 일반인들까지도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로 인하여 이와 같은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다[3].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성에 대한 인식과 연관이 있고, 이로 인해 성지식이나 피임과 같은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지식은 개인이 알아야 하는 성과 관련된 지식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은 성적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4].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 안에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5]. 성교육을 통한 성지식의 향상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의 시기는 자유로운 이성교제와 개방된 성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성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6]. 그러므로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화된 성교육이 대학이나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며 성지식의 정도와 성지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피임은 임신을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7].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결과는 산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생아의 출생이나 출생한 신생아의 양육환경의 부재로 인한 입양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7]. 피임태도는 피임행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하며 개인이 피임실천을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된다[8]. 이러한 피임태도는 여러 가지 교육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9]. 그리고 피임태도의 정도에 따라 피임을 실천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10]. 피임태도는 피임에 대한 자기 결정, 파트너와 의사소통, 피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

수적이므로[11] 피임태도의 정도를 알아보고 피임태도의 정도를 높이는 것은 성가치관의 확립과 다양한 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시킬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감지하는 능력으로 성차별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와 그 차이들이 미치는 영향 등을 인지하는 것으로 성차별과 성과 관련된 불평등을 인지하는 능력은 말한다[12].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의 발생 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며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12]. 이와 같은 성인지 감수성은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불감성이 만연한 이 시대에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사회인들에게 필수불가결하게 인지해야 할 덕목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13]. 우리 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산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14].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마스크를 통한 인식력 재고로 인해 성차별과 성의식이 완화되고 전환되고 있지만[15] 아직까지도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성차별과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으로 인한 성관련 범죄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성인지 감수성의 의식화와 그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에 근무하여 인간을 다룬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그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성지식과 피임태도와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와 차이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고,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자는 U시에 소재한 C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타과나 휴학생은 제외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자는 169명이었다. 설문을 위해 기관의 허락을 받고 학과 학과장과 면담하고 학과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그리고 동의서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설명문과 동의서는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정보와 조사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이외에 사용 되지 않는 것과 비밀은 보장됨을 명시하였다. 본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수를 2개 지정하였을 때, 최소한의 표본수는 119명이었고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69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성지식

간호대학생의 성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호선민[16]이 수정 보완한 성지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크게 생식기, 임신 및 출산, 성건강, 성행위 4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되었고 문항의 세부적인 구성은 총 38문으로 생식기(8문항), 임신 및 출산(9문항), 성건강(12문항), 성행위(9문항)이었다. 문항의 내용이 맞을 경우 '그렇다', 아닐 경우 '아니다', 모르는 경우 '모르겠다'에 표기하도록 하였

다. 문항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한 경우 1점, 틀리거나 모르겠다로 표기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74이었다.

2.3.1 피임태도

간호대학생의 피임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황신우[10]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보호요인(2문항), 성교방해요인(6문항), 이미지요인(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문항을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79이었다.

2.3.2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감수성은 이진영[12]이 개발한 젠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12문항), 자기성찰(9문항), 비폭력(8문항), 감정이입(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1항목을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진영[9]의 연구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의 Cronbach's α =.835, 자기성찰 Cronbach's α =.690, 비폭력 Cronbach's α =.624, 감정이입 Cronbach's α =.745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8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지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분석을 하였다. 성지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 학생이 35명(20.7%), 2학년 학생이 42명(24.9%), 3학년 학생이 43명(25.4%), 4학년 학생이 49명(29%)로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성별은 여자가 130명(76.9%)으로 남자의 43명(25.4%)보다 많았다. 거주 형태는 자택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106명(62.7%)

로 가장 많았고 자취 37명(21.9%) 그리고 기숙사 거주가 25명(14.8%)로 그 뒤를 이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성 태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80명(47.3%)로 가장 많았고 폐쇄적이 58명(34.3%), 개방적이 31명(18.3%)로 가장 적었다. 대상자들의 현재 교

Table 1.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Gender Suscepti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69)

		n (%)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Gender Susceptibility	
			M±SD	t or F(P), Sheffe	M±SD	t or F(P), Sheffe	M±SD	t or F(P), Sheffe
grade	1 ^a	35(20.7)	23±5.96	15.718(<.001)	1.98±0.49	2.331(0.076)	3.3171±0.47	4.327(0.006)
	2 ^b	42(24.9)	26.62±3.92	d>b,c>a	2.28±0.52		3.3034±0.58	c>d
	3 ^c	43(25.4)	27.21±5.71		2.06±0.50		3.4936±0.65	
	4 ^d	49(29.0)	30.12±3.05		2.06±0.62		3.0652±0.55	
gender	male	39(23.1)	27.92±4.52	1.43(0.233)	2.33±0.56	9.718(0.002)	2.8941±0.53	25.41(<.001)
	female	130(76.9)	26.77±5.48		2.03±0.53		3.403±0.56	
Residence type	with family	106(62.7)	26.73±5.26	1.317(0.271)	2.06±0.49	1.487(0.220)	3.2876±0.61	0.325(0.807)
	with relatives	1(0.6)	24±0		1.66±0		4±0	
	by own	37(21.9)	28.49±5.81		2.26±0.66		3.163±0.56	
	dormitory	25(14.8)	26.32±4.38		2.03±0.56		3.4297±0.48	
parents' sexual attitude	opened	31(18.3)	27.23±5.93	2.137(0.098)	2.20±0.61	2.137(0.098)	3.2997±0.64	0.325(0.807)
	middle	80(47.3)	26.08±5.35		2.05±0.50		3.3149±0.60	
	closed	58(34.3)	28.19±4.63		2.10±0.57		3.2439±0.55	
Dating experience	present	69(40.8)	27.43±5.62	0.807(0.522)	2.18±0.57	0.840(0.501)	3.208±0.55	1.789(0.113)
	not now but past	76(45.0)	26.74±5.30		2.03±0.53		3.4007±0.62	
	No experience	24(14.2)	26.41±4.07		2.10±0.55		3.1012±0.55	
First experience of intercourse	middle school	2(1.2)	30±2.82	5.660(0.001)	2.54±0.17	4.284(0.006)	3.5±0.88	1.591(0.193)
	high school	12(7.1)	30.25±4.15		2.48±0.65		3.0349±0.88	
	college	92(54.4)	27.87±5.19		2.14±0.55		3.244±0.56	
	No experience	63(37.3)	25.11±5.10		1.95±0.49		3.3871±0.55	
First intercourse partner	boy friend or girl friend	97(57.4)	28.04±5.21	0.367(0.870)	2.19±0.57	0.341(0.887)	3.08±0.32	0.647(0.664)
	friend	5(3.0)	28.2±3.76		2.25±0.57		3.2645±0.62	
	coworker	1(0.6)	30±0		2.5±0.549		3.3226±0.62	
	stranger	1(0.6)	32±0		1.66±0		3.4194±0	
	prostitute	2(1.2)	32±0		2.41±0		2.871±0	
	No experience	63(37.3)	32±4.159		1.83±0.49		3.9032±0.88	
First intercourse motivation	with agreement and planned	32(18.9)	27.63±6.28	0.533(0.751)	2.07±0.55	2.191(0.061)	3.2026±0.50	1.820(0.116)
	with agreement but not planned	57(33.7)	28.46±4.66		2.19±0.50		3.2286±0.59	
	partner's begging	8(4.7)	27.63±3.46		2.29±0.79		3.7056±0.75	
	Impulsively	3(1.8)	27±3.72		3.83±0.58		2.9355±0.80	
	drunken status	6(3.6)	30.5±7.071		2.27±0.56		2.7742±0.45	
	No experience	63(37.3)	25±5.10		2.41±0.58		3.0645±0.60	
Contraception during first sex	Yes	78(46.2)	28.03±5.35	0.267(0.606)	2.14±0.58	2.583(0.111)	3.2692±0.60	1.566(0.214)
	No	28(16.6)	28.61±4.33		2.33±0.49		3.1025±0.59	
	No experience	63(37.3)	28.18±5.08		2.19±0.56		3.2252±0.60	
Pregnancy experience	Yes	4(2.4)	28±8.64	0.005(0.943)	2.18±0.58	0.000(0.985)	3±0.60	0.571(0.451)
	No	102(60.4)	28.19±4.96		2.19±0.49		3.234±0.59	
	No experience	63(37.3)	28.18±5.08		2.19±0.56		3.2252±0.60	

재중인 학생의 수가 69명(40.8%)이었고, 지금은 없으나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76명(45%), 교제의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24명(14.2%)로 나타났다. 첫 관계 시기는 대학생이 92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시기가 12명(7.1%), 중학교 시기는 2명(1.2%)이었으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는 63명(37.3%)이었다. 첫 관계의 상대는 애인 97명(57.4%), 이성 친구 5명(3%) 유흥업계 종사자와 2명(1.2%), 동료와 알지 못하는 타인이 각각 1명(0.6%)이었다. 첫 관계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계획 없이 서로의 동의가 57명(33.7%)이었고, 계획하고 서로 동의하여가 32명(18.9%), 단지 상대가 원해서 8명(4.7%), 술결에 6명(3.6%), 분위기에 의해 충동적으로 3명(1.8%)로 나타났다. 첫 관계시 피임을 한 경우가 78명(46.2%)이었고 하지 않는 경우는 28명(16.6%)으로 나타났다. 임신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명으로 2.4% 이었다 [Table 1].

3.2 대상자의 성지식,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

대상자들이 성지식은 38문항 각 1점씩 38점 만점에 27.04 ± 0.552 점이었고, 피임태도는 5점 만점에 2.104 ± 0.552 점이었고, 성인지 감수성은 5점 만점에 3.285 ± 0.591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Level of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Gender Susceptibility (N=169)

	M±SE	Range
Sexual Knowledge	27.04±0.552	0-38
reproductive organs	6.721±1.401	0-8
pregnancy and childbirth	5.881±1.409	0-9
sexual health	8.343±2.641	0-12
Sexual intercourse	6.088±1.945	0-9
Contraceptive Attitude	2.104±0.552	1-5
Gender Susceptibility	3.285±0.591	1-5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Gender Susceptibility

Variables	B	SE	β	t	p	R2	Adj. R2	F(p)
Constant	4.343	.273		15.885	.000			
Sexual Knowledge	.009	.008	.085	1.173	.242	0.134	0.124	12.910 (<.001)
Contraceptive Attitude	.381	.077	.356	4.923	.0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식,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은 학년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이 결과는 유의미하였다($F=15.718, p<.001$). 또한 첫 성관계가 없는 대상자 보다 성지식의 정도가 높았으며 그 값이 유의미 하였다($F=5.660, p=.001$). 피임 태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등이 높았으며 그 결과는 유의미 하였다($t=9.718, p=.002$). 또한 첫 성관계의 시기가 어릴수록 피임태도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F=4.284, p=.006$). 성인지 감수성의 경우 3학년이 다른 학년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4.327, p=.006$) [Table 1].

3.4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의 관계

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은 간호학생들의 피임태도 ($r=0.357, p<0.001$)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있음을 보여주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169)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Gender Susceptibility
Sexual Knowledge	1		
Contraceptive Attitude	0.017 (0.824)	1	
Gender Susceptibility	0.091 (0.24)	.357 (<.001)	1

3.5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에서 Durbin-Watson통계량은 1.848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 (Tolerance)는 1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성인지

감수성은 피임태도에 의하여 12.4% 설명되었으며 ($F=12.91, p<0.001$)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임태도($\beta=0.356, p<0.001$)임을 확인하였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및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은 27.04점(38점 만점)을 평균점으로 보여주었는데 이는 약 10년 전의 연구와 비교하면[16] 2009년 당시의 성지식 평균 23점보다 월등히 성지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르게 인터넷 등을 통한 서구문화의 유입과 가상의 공간에서 미디어를 통한 성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급격한 변화가 하나의 원인이라 생각된다[17]. 본 연구의 성지식의 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생식기 영역이 6.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 건강 영역 8.3/12점, 성행위 6.1/9점이었고 임신 및 출산 영역이 5.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교과 편성에서 저학년에서 학습한 해부학을 학습한 결과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지식은 첫 성관계의 시기와 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심정신[18]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부모의 성태도가 성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성교제 경험은 성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18]. 성지식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과 상관이 없었으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피임태도는 2.104점(5점 만점)으로 중간에 못 미치는 정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성별과 첫 관계 시기에 따라 피임태도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피임태도의 정도가 높았으며, 첫 관계 시기가 어릴수록 피임태도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으로 피임태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첫 관계의 시기가 어릴수록 성관계와 임신에 대한 정보에 오랫동안 노출된 결과라 유추된다. 그러나 임복희와 박지경[9], 김현영[7]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피임태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와 동일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피임태도의 정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다른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

가 간호대학생이라는 집단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임태도는 거주형태에 따라 차이가 없었지만 선행연구[9]에서는 차이가 있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피임태도는 성지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인지 감수성에는 상관이 있으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피임태도는 피임에 대한 자기주장이나 피임법에 관한 질문으로 개인이 성행위를 하는데 있어 스스로 피임을 요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7]. 본 연구에서 피임태도가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준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성에 대한 개방성과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을 포함하므로 피임태도가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에게 피임태도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올바르게 정확한 피임교육이 피임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배로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피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무방하며, 올바르게 정확한 피임교육이 대학생 차원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3.285점(5점 만점)을 보여주어 중간을 조금 넘는 정도를 보였다. 대학생들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한 부분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된 신념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해 관용적이고 성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어[19] 대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으로 인해 성차별이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으므로[20]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일을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방안을 확립해야 하며 학년별이나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방안으로 피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을 양성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피임태도가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대학생들 특성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실습, 취업 시 경험할 수 있

는 성관련 문제에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을 돕기 위해 피임태도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제한점도 있다. 본 연구는 일개 학교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2019.11.26. BBC news,
<https://www.bbc.com/korean/news-50542284>
- [2] 2020.01.28. Women news,
<https://www.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838>
- [3] Y. C. Kim. (2019.01.18.). The Law Journal.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32>
- [4] S. M. Koo & H. J. Kim(2017).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1-11.
DOI : 10.14400/JDC.2017.15.12.1
- [5] Ministry of Education, A Strategy for Students Health Promotion. (2019)
- [6] Y. S. Kang & H. N. Hwang. (2017). A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1), 9-17.
DOI :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1.9>
- [7] H. Y. Kim. (2019). Factors Affecting Contraceptive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5), 384-393.
- [8] K. S. Koh. (2014). Mediating effects of birth control knowledge in relation to effects of high schoolers' birth control self-efficacy on birth control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9] B. H. Im & J. Y. Park. (2018). The Effects of Contraception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ived Risk on the Contraception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9(4), 1621-1635.
DOI : 10.22143/HSS21.9.4.112
- [10] S. W. Hwang. (201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ontraceptive Behaviors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Unpublished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1] Y. J. Kim., D. H. Kim & J. H. Park. (2017). The Effects of Contraceptive Education Program on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Contraceptive Self-effica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246-255.
DOI : 10.5762/KAIS.2017.18.10.246
- [12] J. Y. Lee. (2011). A Study on Developing Gender Sensitivity Measur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3] H. J. Lee., S. Y. Oh & E. S. Kim. (2018). A study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wareness of gender sensitivit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3(2), 169-194.
DOI : 10.20437/KOAECE23-2-08
- [14] K. J. Kim. (2013). A Study of Gender-Perspective Policy Recognition in Local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7(3), 1-23.
DOI : 10.18398/kjlgas.2013.27.3.1
- [15] K. S. Joo, K, M, Kim & J. P, Lee(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ity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6), 213-229.
DOI :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6.213>
- [16] S. M. Ho. (2009).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7] H. K. Kim. (2017). Effect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n the Sexual Cop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8(1), 31-42.
- [18] C. S. Shim. (2016). The Study on Sexual Knowledge, Contraception Knowledge and Sexual Permissiveness in Health Department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8), 1-14.
DOI : 10.35873/ajmahs.2016.6.8.001
- [19] E.S. Lee & H. S. Kang(2014).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Dating.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 1226-4938.
DOI : 10.14370/jewnr.2014.20.1.48
- [20] Y. M. Choi & H. Y. Jeong. (2020). An Analysis of Gender Sensitivity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a Survey Targeting K University Students). *KNU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4(2), 65-89.
DOI : <http://doi.org/10.31366/jer.2020.34.2.6>

조 영 미(Young-Mi Cho)

[정회원]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4년 12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Master's of Nursing Science)
- 2019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한방간호, 간호교육
- E-Mail : choyoung23@ch.ac.kr

이 주 연(Joo-Yeon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5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9년 8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20년 2월 ~ 현재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시뮬레이션실습
- E-Mail : wndus@chsu.ac.kr